지역 소식통

김제농협, 행복채움 금융교실 열어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지부장 전영길)는 지난 8일 만경여고 2~3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행복채움 금융교실을 열었다.

이번 금융채움교실은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 홍정아 과장이 청소년의 올바른 신용관리를 주제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NH농협은행은 모두가 같이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같이의 가치' 미션을 바탕으로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재테크, 미래설계, 금융사기예방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서비스인 "행복채움금융교육"을 운영하여 공익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금산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점검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묵)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금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6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상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제 수강인원 및 향유 연령층을 파악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운영과 연말 총회 시 시행되는 프로그램 적격성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2009년 탁구와 요가교실로 본격 시작된 금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현재 체조, 요가, 노래, 오카리나를 비롯하여 족구와 한국화교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1월에는 7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과년도 추진성과와 주민참여율 등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어촌 민박서비스 교육

완주군이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일 완주군은 관내 민박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덕진소방서와 친절 서비스 관련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해 화재 시 신속한 대응방법, 소화기 사용법, 여름철 철저한 식품위생, 식중독 예방,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른 의무교육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민박사업자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며 "휴가철을 앞둔 시기 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저출산·고령화 소멸위험 없다

완주군, 지방행정연구원 분석 결과… 향후 인구비중 중 출산여성 증가 예상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완주군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로컬푸드 활성화에 따른 귀농귀촌 등에 힘입어 소멸위험이 거의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완주군에 따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소멸지역 분석' 자료를 통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멸예상지를 분석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크게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를 고려한 1안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 주민세를 기준으로 한 2안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 종업원수를 포함한 3안 △인구변화, 가임인구변화, 고령인구변화, 주민세, 종업원수를 반영한 4안으로 소멸예상지를 분류했다.

이어 4가지 방안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안정지역 △인구감소 검토지역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 등 4분위로 나눴다.

완주군은 인구와 가임인구, 고령인구 등의 변화를 고려한 1안에 따른 분석 결과,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분류됐다.

1안에 따른 분석 결과,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분석된 전북 시·군은 완주군과 함께, 군산시, 전주시에 불과했다.

특히 완주군은 인구 및 가임인구, 고령인구 등의 변화에다, 사회경제적 요소인 주민세를 고려한 2안에서는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볼 때, 완주군은 전반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란 악재 속에서도 인구감소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경우 상당수가 인구감소 신중검토지역, 인구감소 위험지역 등 전반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 우려가 높게 나왔다"며 "완주군은 꾸준한 인구증가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효과를 거둔 만큼,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사랑장학재단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슬로건, 수기, CI(Corporate Identity)를 공모한다.

김제사랑장학재단, 슬로건·수기·CI 공모

이달 30일까지… 이미지·메시지 마련 위해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슬로건, 수기, CI(Corporate Identity)를 공모한다.

재단은 2007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김제사랑 장학금 지급, 내고장학교 보내기 격려금 지급, 인터넷 동영상 강의 무료 지원, 지평선 학당 운영, 학부모 입시교실 운영 등의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김제시 교육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관내고교 진학률을 재단 설립 이전 63%에서 올해 70% 이상으로 높인 것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장학재단은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2의 도약을 하고자 시민과 참여와 소통을 통해 '초등에서 대학까지 맞춤형 장학사업의 완성'이라는 장학재단의 비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마련하기 위해 슬로건, 수기, CI를 공모한다.

CI(이미지 통합) 디자인 부문에서는 김제사랑 장학재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슬로건 부문에서는 차세대 김제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장을, 수기부문에서는 김제사랑 장학재단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장학사업 수혜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변화와 성공사례를 공모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김제시 홈페이지(www.gimje.go.kr) 오른쪽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접수양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 국민 손 씻기 캠페인'

완주군 보건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 안내

완주군 보건소가 여름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 국민 손 씻기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9일 보건소 직원들은 고산면 재래시장을 찾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교육 리플릿과 스티커, 비누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감염으로는 식품 매개 감염, 수족구병, 눈병, 피부병 등이 있다.

특히 수족구병은 올해 들어 5세 이하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소는 이 같은 여름철 주요 발생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로 위생을 지키고, 안전한 음식물의 섭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 설사가 있거나 눈과 피부가 가렵고 붓는 등 몸이 이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완주군 보건소는 여름철 주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과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하절기 비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박현선 완주군보건소장은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및 호흡기감염병 등 여름철에 유행하기 쉬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휴가철인 만큼,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세미나

김제시(시장 이건식)는 지난 9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상록관 대강의실에서 '김제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 중인 '벽골제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용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유산 등재의 사전절차인 잠정목록 신청을 앞두고, 벽골제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유사사례 비교연구 등 벽골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주제는 ▲서현주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벽골제의 고고학적 가치' ▲김순기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세계유산 문화경관으로서의 벽골제의 가치와 경관 특성' ▲김선주 교수(건국대학교)의 '세계관개시설유산 벽골제' ▲최종희(배제대학교)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과 비교한 벽골제의 특징' ▲김충식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벽골제의 보존관리계획'진행되었다.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고 진상철 책임연구원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함께 이왕기 교수(목원대학교) 외 4명의 토론자가 참여하여 벽골제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에 초점을 맞춰, 등재기준과 등재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건강조사에 함께 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우리 김제 시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 습관, 의료이용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 및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소중한 근거 중심의 자료로 활용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적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는데 먼저 조사원을 모집하고 전문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하게 된다.

김제시에서는 6명을 모집하는데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우리시 표본가구로 선정된 450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원의 동의 후 CAPI(전자조사표)에 의한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진다.

/김제=곽노태 기자